

신세계, 자회사 연결망 강화... '물류·e머커스' 새판 짬다

계열사 간 상품 연동 확대
CJ대한통운 물류망 공유
협업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신세계가 자회사 연결망 강화에 나섰다. 배송 물류망 공유와 상품 채널 확대라는 두 축을 통해 실적이 부진했던 자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자회사들이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공유하며 빠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더해 계열사 간 상품 연동을 확대해 그룹사 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사인 G마켓이 우수 상품을 SSG닷컴에 연동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동 서비스는 G마켓의 판매 관리 사이트인 이에스엠플러스(ESMPLUS)를 통해 이뤄진다. G마켓에 등록된 상품은 그대로 SSG닷컴에 노출되며 상품 정보 수정 및 배송, 고객 문의 답변 등도 연동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 신세계그룹의 'G마켓 구하기'

SSG닷컴과 G마켓 간 상품 연동을 두고, 신세계그룹이 실적 부진을 겪는 G마켓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G마켓은 이커머스 시장 불황 속에서 계속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G마켓의 카드결제 금액은 38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해 카드 결제폭이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카드결제 금액이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쿠팡과 지난해 대비 6% 오른 CJ온스타일과 대비되는 실적이다.

SSG닷컴과 G마켓의 채널을 공유해 상품 노출률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G

마켓 관계자는 "신세계 관계사 시너지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서비스로 G마켓 판매고객에게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여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매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빠른 배송 서비스 확대

신세계그룹은 상품 연동 외에도 CJ대한통운과의 협력을 통해 자회사들이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먼저 SSG닷컴은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활용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충청권으로 새벽 배송을 확대했다.

당시 SSG닷컴 관계자는 "이번 권역 확대는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맺은 사업 제휴 합의 성과로 CJ대한통운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역시 CJ대한통운 물류망을 공유하며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 10일 '오늘 도착'과 '일요일 도착'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오늘 도착'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배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당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일요일 도착'은 토요일 주문 상품을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 협업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상온 및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해 배송 상품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의 이같은 행보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신선식품 시장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경쟁사들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현재 신선식품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더 강력한 배송망과 업종 간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차원에서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의 역량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퀴진케이' 글로벌화... 한식 생태계 확장

'한식 전도사 양성 플랫폼' 진화
비비고 제품 활용 요리대회 지원

CJ제일제당이 퀴진케이(Cuisine.K)의 커리큘럼 고도화를 통해 '한식 전도사 양성 플랫폼'으로 한 차원 더 진화한다.

CJ제일제당은 '2025 퀴진케이 닷츠데이'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명인 닷츠(DOTS)는 Dreams, Opportunity, Together, Start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젊은 셰프들의 꿈을 키우고 지원하는 퀴진케이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2023년 출범 이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세프와 멘토 셰프,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등이 참석해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퀴진케이 알umni(Cuisine.K Alumni) 2기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CJ제일제당

퀴진케이의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CJ제일제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젊은 한식 셰프 육성 및 한식 문화 전파를 통한 K-푸드 위상 강화라는 목표 아래 ▲한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 ▲한식 파인 다이닝 실습(K-스타주) ▲한식 명인,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식자재 연구 클래스(마스터 클래스) ▲요리대회 후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5월 퀴진케이 프로젝트 출범 후 약 1년 반 동안 200여 명의 한식 영세프들을 지원하며 한식 저변 확대 기여는 물론, K-푸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퀴진케이 프로젝트 출신의 첫 오너 셰프가 탄생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까지 퀴진케이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셰프 육성 과정을 구축한다.

먼저 팝업 레스토랑의 첫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한식 파인 다이닝 실습 프로그램인 K-스타주는 해외 셰프를 대상으로 한국의 총체적인 식문화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고, 해외에서 한식 영세프들이 직접 시연하는 K-푸드 쿠킹클래스 등도 계획 중이다. 해외 요리학교와 협력해 글로벌 K-푸드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 제품을 활용한 K-푸드 요리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프들의 소모임인 '퀴진케이 살롱' 운영을 통해 한식 R&D를 적극 지원하고, 퀴진케이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영세프 뿐만 아니라 소믈리에, 서비스 직군 등으로 확대해 한식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울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1면 '북풍 준비·계획...'서 계속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운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 임무 지시 없었다'

강호필 지상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관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사에 임무를 쫓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쫓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崔 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 가중 시킬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

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